

이슬람 금융, 현실과 이상의 간극*

오명석 역음, 『이자 없는 금융은 가능한가: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이슬람금융의 이론과 현실』(명인문화사, 2022)을 읽고

석승훈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이 책은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를 중심으로 이슬람 금융에 대해 고찰하고 있다. 크게 두 가지 축을 중심으로 논의가 전개되는데, 하나는 이슬람 금융의 발전과정과 현 상태를 살펴보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이슬람 금융의 형식과 내용에 대한 내부적 반성과 논쟁을 살펴보는 것이다. 이슬람 금융의 쟁점들에 대한 개관에 덧붙여, 이슬람 은행과 이슬람 주택금융, 이슬람 보험(타카ful), 이슬람 증권(수쿠) 등의 금융의 각 분야에 대해서 설명하고 논의한다. 이슬람 금융의 형식과 목적에 대한 갈등과 논쟁에 대한 논의 역시 중요하게 다뤄진다. 아래에서는 이 책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 정리한 후에, 필자의 생각을 추가하고자 한다.

I. 책 내용 요약

197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슬람 금융은 이슬람 은행, 증권(수쿠), 보험(타카ful) 등의 분야에서 확대되고 세계화되고 있다. 이슬람 금융의 핵심은, 이자(리바), 불확실성(가라르), 도박(마이시르)이 금지이며, 아울러 금지된(하람) 산업 투자 등이 개입되지 않는 형태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 저자는 서울대학교 경영연구소의 지원에 감사한다.

이슬람 금융이 발전하면서, 이슬람 금융이 관행 금융을 대체하는지에 대한 논쟁과 더불어 이슬람 금융의 이슬람성에 대한 논쟁이 진행되고 있다(1장). 특히 이슬람성의 의미에 대해서는, 샤리아 규정의 법적 형식을 중시하는 ‘샤리아를 준수하는(shariah-compliant)’ 접근방식과 샤리아가 지향하는 가치를 중시하는 ‘마카시드 샤리아(Maqasid Shariah, 샤리아의 목적)’ 접근 방식이 갈등한다. 현재 이슬람 금융이 샤리아 준수 금융의 의미로 정착하고 있는바, 이에 대해 ‘마카시드 샤리아’의 전통적 입장에서 비판과 반성을 요구하고 있다. 대표적인 논쟁의 지점은 다음과 같다. 현재 지배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채무 금융의 형태인 무라바하와 이자라가 포함된 이슬람 금융은 형식적으로는 샤리아를 준수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자가 개입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계약 당사자 쌍방 간 혹은 삼자 간에 동일한 재화를 ‘사고 되파는’ 거래인 바이 이나(bay inah)나 타와룩(tawarruq) 역시 이자를 우회하려는 불순한 법적 책략(히얄)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수륙의 거래는 소유한 재산이 아니라 채권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매매하는 바이 다인(bay dayn)의 문제를 야기하는데, 양도의 불확실성을 내포한 거래이므로 가라르 금지에 위배될 수 있다. 이슬람 보험인 타카풀의 경우에도 쟁점의 시작은, 보험료와 지급이 불확실한 보험금을 교환하는 보험의 거래가 가라르 금지에 위배될 수 있다는 점이다.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의 이슬람 주택금융과 관련되어서도 샤리아 준수 시각과 마카시드 샤리아 시각의 갈등이 존재한다(2장). 구체적인 예로 무라바하, 특히 말레이시아의 무라바하-바이 비사만 아질(BBA)은 사실상 이자 부과, 바이 이나와 바이 다인의 문제에 모두 노출 되어 있다. 또한 무샤라카 무타나키사(musharakah mutanaqisah)와 이자라 문타히아 비탐릭(ijarah muntahia bittamleek, IMB)은 이자라(임대)가 개입되어 있는데, 임대료가 사실상 이자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음이 문제로 지적된다.

마카시드 샤리아의 시각에서 비판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이슬람 금융 종사자들은 나름대로 자신의 이슬람성을 옹호한다(3장). 현지 조사에 따르면, 마이크로파이낸스를 제공하는 한 인도네시아의 이슬람 신용조합 종사자의 경우, 비록 자신의 조합이 이윤추구적 경향이 있고, 높은 마진을 부과하는 등 비판을 받기는 하지만, 스스로는 공동 복지를 위한 샤리아 가치를 적용하고 마이크로 파이낸

스에서 최상의 서비스 제공하고 있음을 강조한다.

이슬람 금융의 관점에서, 관행 보험의 매매 대상인 보험금의 지급은 예측할 수 없는 사고의 발생을 조건으로 하므로, 인도가 불확실하다. 따라서 관행(주식회사) 보험은 가라르 계약으로 보고 불허한다(4장). 이에 대한 대안으로 이슬람 보험인 타카풀이 만들어졌다. 가라르 매매를 회피하기 위해서 타카풀은 증여(tabarru) 혹은 공유(taawun)의 개념으로 정당화된다. 그러나 증여는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이어야 한다는 샤리아의 증여 규정과 배치될 소지가 많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공유로서의 해석이 유력해지고 있다. 보험 계약자들의 공유로 타카풀을 해석할 경우, 이는 관행 보험의 상호회사 형태와 유사하다. 타카풀 조직은 주로 주식회사의 구조를 갖는데, 보험 계약자와 회사가 수익을 나누는 무다라바 모형과 회사를 보험 계약자의 대리인으로 간주하는 와칼라 모형이 주로 사용된다. 이들에는 보험차수익의 해석과 배분 문제와 내부 통제의 문제가 존재한다.

타카풀의 운영에서 중요한 이슈는 보험 계약자에 대한 리스크 인수와 수익 배분 문제다(5장). 리스크 인수에는 리스크 기술이 사용되는데, 보험수리학을 바탕으로 리스크를 측정하고, 분류하고 등급을 매긴 후 등급에 따라 보험료나 보험금을 차별한다. 말레이시아의 한 타카풀에서의 현지 조사에 따르면, 이슬람 법학자들은 리스크 기술에 대해서는 별 문제 제기를 하지 않지만, 보험차수익 분배에는 높은 관심을 갖고 있다. 보험수리학은 가라르를 해소하고자 하는 샤리아 정신에 부합하며, 타아운 원리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이는 관행 보험의 공정한 차별(fair discrimination) 논리와 일치한다. 한편, 보험차수익에의 관심은, 보험차수익의 개념과 연관된다. 타카풀을 합리화하는 공유의 시각에서 보면, 보험차수익은 이윤이 아니라 잉여금(residue)으로 타카풀 가입자에게만 귀속되므로, 주주가 이윤 배분의 권리가 없다는 것이다.

인도네시아는 말레이시아와 대비해서 좀 더 샤리아의 목적에 충실한, 즉 마카시드-샤리아적 경제 운영을 지향한다(6장). 특히, 최고의 종교적 실천인 자카트를 실천하고자 하고, 이를 위해 소위 자카트노믹스(Zakatnomics)를 표방하였다. 자카트노믹스는 마카시드 이슬람경제를 구현해 내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노력으로 사회 재분배 및 사회복지 정책에서 자카트를 활용함을 의미한다.

한편,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의 이슬람 금융 법제와 치리 체제는 큰 틀에서

는 비슷하지만 세부적으로 차이가 난다(7장). 두 나라 모두 국가 차원에서의 공식 올라마 체제 및 파트와 발행 기관을 운영하지만, 말레이시아의 경우에는 국가 관료조직화 되어 정치 엘리트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에 반해 인도네시아의 경우에는 종교지도자들의 모임으로 NGO의 성격이 강하다. 상대적으로 말레이시아의 이슬람 금융은 샤리아 준수의 측면에서 관대하게 허용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의 경우에는 마카시드 샤리아의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수쿱은 1990년 말레이시아에서 최초로 발행된 이래,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에서 모두 활발하게 발행되고 있다(9장). 특히 2001년 이슬람금융기관회계감사기구(AAOIFI)가, 차입형태로 조달된 자금에서 발생한 수익의 소유권에 기초한 수쿱 역시 샤리아에 적합하다는 의견을 낸 이후로, 수쿱은 채권 금융 형태로도 발전해 오고 있다. 수익 배분의 성격에 따라 보면, 이자라, 무라바하의 채무금융 형태와 무다라바, 무사라카의 출자 금융 형태가 대표적으로 이용되며, 운영 형태로는 대리인을 이용하는 와칼라 수쿱이 많이 이용된다.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수쿱과 주식시장 사이의 충격 전이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두 국가 모두에서 이슬람주가지수에서 관행주가지수(이슬람주가 포함)로의 충격 전이는 없지만, 역방향으로는 존재한다(8장). 이는 이슬람 주가와 비이슬람 주가 사이에 대체성이 있음을 암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수쿱의 규모가 큰 말레이시아에서만 이슬람회사채지수와 관행회사채지수 사이의 충격 전이가 관찰된다. 아울러, 경제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인도네시아로부터 말레이시아로의 충격 전이가 더 잘 관측되고 있다.

이 책은 우선 이슬람 금융에 대한 좋은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이슬람 금융에 대해 접해 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 책은 이슬람 금융의 역사와 현주소에 대해 좋은 정보를 제공해 준다. 관행 금융(즉, 자본주의적 질서를 따르는 금융)에 익숙한 사람들에게, 이자 없는 금융으로서의 이슬람 금융은 한편으로는 불편한 것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비합리적인 것 정도로 간주되기 쉽다. 이 책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이슬람 금융의 내용과 고민들에 대해 안내서 역할을 함으로써, 관행 금융과는 다른 금융 제도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 따라서 관행 금융만이 유일하거나 당연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돌아보게 해 줄 것이다.

그러나 이 책은 단순히 이슬람 금융의 소개에 그치는 것은 아니다. 보다 중요

하면서 또 차별적인 의의는 현재 진행형인 이슬람 금융에 대한 이슬람 내부의 반성과 고민을 논의한다는 점에 있을 것이다. 이 반성과 고민의 핵심은 이슬람 금융의 형식과 본질 사이의 괴리, 혹은 샤리아 준수와 마카시드 샤리아 사이의 괴리에 있다. 현행의 이슬람 금융이 형식적으로는 샤리아를 준수하는 모습을 띠지만, 본질적으로는 샤리아의 근본 목적인 공익과 사회복지의 추구, 자칫의 실천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II. 갈등

이 책에서 강조하는 계약상의 형식과 본질 사이의 괴리는 편의상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첫번째는 이자 금지라는 명령의 준수 여부다. 두 번째는 불확실성 금지라는 명령의 준수 여부다. 물론 이 둘은 배타적인 것은 아니다.

첫 번째의 괴리는 무라바하 방식이나 이자라 방식에서 찾아볼 수 있다. 무라바하 방식의 금융은 실물자산을 구매하고 매도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차입자(용어의 편의상 돈이 필요한 사람을 이렇게 부르자)에게 현금이 지급된다. 금융기관은 차입자에게 자산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판매이익을 얻고, 차입자는 자산 구매의 대가를 후불 또는 연불로 지급한다. 이 과정에서 형식적으로는 금융기관이 이자수입을 얻지는 않지만, 판매이익이 본질상 이자나 마찬가지로 작동한다. 즉, 무라바하는 이자를 금지하는 샤리아를 형식적으로 따르므로 샤리아 준수(shariah compliant) 금융이지만, 본질적으로 이자가 개입된다는 면에서 샤리아의 정신이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 즉 마카시드 샤리아에 위배될 수 있다.

이자라 방식 역시 마찬가지로 실물자산의 구매와 매도 과정을 거치면서 차입자가 임차료 형태로 금융기관에게 지불하게 되는데, 이 임차료 역시 사실상 이자가 포함되는 것과 같다고 해석될 수 있다. 무라바하와 마찬가지로 마카시드 샤리아에 위배될 수 있다.

한편, 바이 이나 방식이나 타와룩 방식 역시 형식적으로는 자산의 구매와 매도 과정을 거치면서 이자를 우회한다는 점에서 무라바하에 대한 비판이 고스란

히 적용된다.

이러한 논란의 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라바하와 이자라 방식은 주택금융이나 수쿱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방식으로 자리 잡고 있다. 샤리아의 근본 정신은 이자의 부과가 아니라 위험의 공유를 요구하지만, 현실의 이슬람 금융은 그에 못 미치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의 괴리는 이슬람 보험과 수쿱의 거래에 주로 관련된다. 보험이 보험료와 보험금의 교환이라면, 이는 현재의 확정된 보험료와 미래의 불확실한 보험금의 교환이다. 따라서 보험은 계약의 불확실성 즉 가라르(gharar)에 해당되어 샤리아에 위배된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상업적 보험을 증여나 공유의 개념으로 해석하고, 이에 따라 이슬람 보험사인 타카풀을 설계하게 된다. 다만 증여는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공유의 개념이 더 각광을 받고 있다. 한편, 현실적인 타카풀의 운영은 공유의 정신보다는 이익을 추구하는 관행 보험사와 별 차이가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샤리아에서는 바이 다인이 금지되는바, 이는 채권에 의해 소유한 재산인 다인은 자신이 직접 소유한 것이 아니므로, 이의 매매에는 가라르가 내재되기 때문이다. 수쿱이 이러한 채권에 기초한 경우라면, 수쿱의 매매는 샤리아를 위배할 소지가 있다. 더욱이, 그 채권이 미수금이나 임대료와 같은 화폐의 경우에는 더 더욱 허용되지 않는다.

필자는 이 책을 읽으면서, 현재 이슬람 금융에서 형식과 목적 사이에 괴리가 존재하고 논쟁의 대상이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볼 기회를 가졌다. 부족하나마 필자의 생각을 아래와 같이 적어 본다.

III. 효율성 또는 거래비용

차입자에게 현금이 필요하다면, 관행 금융에서는 직접 현금을 대출해 주고 이자를 받는 계약을 하면 된다. 차입자는 그 돈으로 필요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다. 그런데 이슬람 금융에서는 이러한 계약이 불가하므로, 금융 기관이 실물 자산을 사고 파는 절차가 추가된다. 그 결과 관행 금융에서보다 최소한 한 두

번의 거래가 추가되어야 한다. 거래, 특히 실물 거래의 추가는 차입자에게 추가적인 거래 비용을 발생시키는 요인이 된다. 즉, 관행 금융에 비해 이슬람 금융은 금전적 효용 측면에서 비효율적이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이슬람 금융은 가능한 한 관행 금융으로 수렴해가려는 경향이 존재하게 된다. 무라바하 방식이 바로 그 추가적인 거래비용을 줄이는 제안이었기 때문에 무라바하 신드롬이 일어날 수 있었을 것이다. 또한 여러 이슬람 금융의 기법들이 비판의 대상이 되면서도 주류로 자리잡은 이유도, 그것들이 더 효율적인 방법이기 때문일 것이다.

마카시드 샤리아 방법은 손익을 공유하는 방식이다. 그런데 손익을 배분하기 위해서는 손익을 계산해야 한다. 만약 손익 계산이 어렵거나 또는 정보의 문제를 발생시킨다면 손익 공유의 방법은 비효율적일 수 있다. 특히 소비자 금융과 관련해서는 비효율적일 가능성이 크다. 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빌리는 경우에, 손익의 개념 자체가 애매해진다. 상인(기업)이 이익을 위해 자금을 빌리는 경우라면 상대적으로 손익 계산이 가능하겠지만, 상인 역시 일반 용도로 자금을 빌리는 경우라면 그 자금을 해당하는 손익을 계산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관행 금융의 경우에도,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형태로 자금을 조달할 때에는 본 기업의 손익과 명확히 구분되는 프로젝트의 손익 흐름을 확인할 수 있느냐가 핵심 사항이 된다. 손익 계산이 어려울 경우에 손익 공유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다.

결론적으로, 부채가 손익 공유보다 더 효율적인 경우, 부채의 방법이 선호된다. 그러나 샤리아에 따라 이자가 금지되므로, 현행의 방법은 이자를 우회하기 위한 추가적인 거래가 동반된다. 그 결과 현행 방법은 (관행 금융) 부채 방법에 비해서는 효율성이 낮지만, 손익 공유의 방법에 비해서는 효율성이 높은 중간 지점에 위치한다. 따라서 마카시드 샤리아에 위배한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효율적인 샤리아 준수 방법을 따르게 된다.

IV. 형식과 목적

이자와 가라르의 금지라는 명령이 샤리아의 목적이 될 수 있을까? 샤리아의

목적이 공익과 복지라면, 이자와 가라르의 금지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계약의 형식에 대한 샤리아적 명령일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현행의 이슬람 금융에 대한 이슬람 학자들의 비판은 목적과 형식 사이의 괴리만이 아니라, 샤리아가 규정한 형식(샤리아적 형식)과 현실적으로 이용되는 형식(현행 형식) 사이의 괴리가 섞여 있어 보인다. 무라바하나 이자라 방식이 사실상 이자 금지를 위배했다는 비판은 샤리아의 목적과의 괴리라기보다는 샤리아적 형식과의 괴리일 것이다. 보험에서도 마찬가지로, 보험 계약을 가라르가 내재된 거래로 보는 것도 형식과 형식 사이의 괴리일 것이다.

형식과 목적 사이의 괴리라면, 계약의 결과가 계약자에게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에 더 큰 관심이 있어야 할 것이다. 만약 계약이 샤리아적 형식을 따랐을 때 더 비효율적이라면, 또 그 비용이 고스란히 차입자에게 부과된다면, 이를 차입자를 위한 방식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샤리아적 형식이 샤리아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가 존재한다면, 샤리아의 목적을 위해서는 샤리아적 형식을 버릴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이러한 측면에서, 인도네시아의 마이크로 파이낸스 사례가 시사하는 바가 있어 보인다. 인도네시아의 이슬람 신용조합은 가난한 차입자에게 무라바하 방식으로 사실상 고리를 부과하여 대출한다. 그럼에도 그들은 그렇게 번 수익으로 이슬람 공동 복지와 이슬람적 삶을 추구한다고 주장함으로써 자신의 이슬람적 성격을 강조한다. 이러한 주장은, 샤리아적 형식을 따르지 않아도 샤리아의 목적을 따를 수 있다는 주장으로 해석될 수 있다.

V. 위험의 배분

생각건대, 이자의 금지는, 약자 혹은 차입자에게 위험을 전부 전가하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다는 인식이 반영되어 있을 것이다. 사실 가라르와 마이시르의 금지 역시 위험의 배분과 관련이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자, 가라르, 마이시르의 금지는 모두, 위험의 정의로운 배분을 지향하고 있어 보인다. 위험의 정의로운 배분은 약자에게 부당하거나 과도한 손해를 끼치지 않는 것을 의미할 것

이다. 이 경우 이슬람 금융의 형식과 목적 사이의 갈등은, 결과적으로 약자에게 이로운 위험의 배분이 샤리아에서 금지한 이자나 가라르를 내포할 경우에 발생한다. 이를테면 적은 이자를 부과하는 부채 방식이 과다한 지분을 요구하는 출자방식보다 차입자에게 더 불리하다고 할 수는 없을 때, 갈등이 생길 수 있다. 혹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자를 우회하는 방법이 오히려 차입자에게 더 큰 비용을 부담 지우는 경우에, 갈등이 생기게 된다.

VI. 정부와 자캣

이슬람 금융과 경제에 대한 논의는 대체로 사적 계약이나 시장을 중심으로 논의된다. 그러나 인도네시아의 자캣노믹스가 시사하듯이, 정부는 공익과 사회 복지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는 이미 자본주의 선진국들에서 많이 논의되고 시행되고 있는 일이기도 하다. 자캣은 재산에 부과되는 일종의 사회복지 세금처럼 생각할 수 있다. 근본적으로 정부는 다양한 정보를 집중적으로 모으고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기에, 우리는 정부에게 사회복지의 역할을 기대한다.

정의로운 위험과 부의 배분은 시장 내에서의 계약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시장은 기껏해야 사전적으로 공정한 교환을 할 뿐이다. 그러나 교환에 위험이 포함되는 경우, 아무리 공정하게 교환한다고 하여도 사후적으로 위험은 불평등을 분배한다. 사후적 불평등은 이기적이고 개인화된 참가자들의 계약에 의해 해소될 수 없다. 이 불평등은, 불평등을 초래한 계약 외부에서 별도의 기제를 통해서만 해소될 수 있다. 이슬람 금융의 갈등은 어쩌면 사전적인 계약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사후적 불평등의 영역까지 계약에 대한 형식적 규제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인지 모른다. 사후적이고 별도의 기제에게 맡겨져야 할 일을 사전적인 사적 계약을 통해 해결하려 한다면, 이로부터 근원적 모순이 시작된다.

현재로서는 사후적 불평등을 가장 잘 해소할 수 있는 기제는 정부이다. (물론 정부는 불평등을 확대하는 능력도 가지고 있다.) 정부는 합법적으로 정보를 축적하고 또

자갯이나 세금에 대한 강제권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정부에 의한 자갯 활용은 계약의 외부에서 사후적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방편이 될 것이다. 자갯이 사회복지를 위한 정부 정책에 성공적으로 내포된다면, 계약의 공정성에 대한 접근법도 바뀌어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계약은 사전적으로 효율적인 방법을 택하되, 사후적으로 문제가 생길 경우 정부가 일정한 역할을 하는 식으로 바뀌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VII. 금융의 상상

보험 거래를 가라르로 보는 것은, 보험 거래를 확정적인 보험료와 지급이 불확실한 보험금의 교환으로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험 거래는 보험료와 보험금의 교환이라기보다는 보험료와 약속의 교환이라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 이때 약속이란 무사고 시에는 무지급, 사고 시에는 지급이라는 것의 집합, 즉 조건과 지급의 총체를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할 때, 보험료가 과도하게 책정된 것이 아닌 한, 보험의 거래는 공정하다고 할 수 있다. 실물의 거래가 아닌 금융의 거래는 언제나 현재와 미래, 그리고 조건부의 교환을 내포한다. 이처럼 금융 거래의 공정성 여부에 대한 해석은 금융 거래에 대한 상상에 따라 달라진다.

바이 다인의 논쟁 역시 이러한 상상의 충돌로 보인다. 수쿱의 거래를 채권의 대상인 재산을 거래하는 것으로 본다면 가라르로 해석 가능하지만, 말레이시아에서처럼 채권 자체를 무형 재산으로 취급하여 채권 자체를 거래하는 것이라면 가라르의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바이 다인의 말레이시아적 해석은 수쿱뿐만 아니라, 금융 자체에 대해서도 이슬람 전통에서 벗어나는 상상으로 연결될 여지가 있어 보인다.

이슬람금융에 대한 이슬람 내부의 비판은, 샤리아 형식을 따르지만 샤리아 목적을 구현하지 못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논의된다. 필자는, 샤리아가 명령하는 형식(샤리아적 형식)과 현실에서 실행되는 형식(현행 형식)을 구분하는 것이 이 논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이슬람 금융에서의 갈등은 샤리아적 형식과 현행 형식 사이의 효율성 괴리와 샤리아 목적과 샤리아적 형식

사이의 괴리라는 이중의 괴리로 인해 발생한다. 또한 계약의 사전적 공정성을 중시하는 계약 중심의 시각은, 계약의 사전적 공정성이 사후적 공정성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한계가 존재한다. 이러한 한계의 해결하기 위해서는 계약 외부에서 정부와 같은 별도의 기제가 개입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자칫을 적극적으로 목적에 맞게 활용할 수 있다면, 샤리아 목적을 구현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은 이슬람 금융을 단순히 소개하는 서적들과는 다르게 이슬람 금융의 내부적 고민을 심도 있게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책이다. 따라서 이슬람 금융을 알고 싶은 입문자들뿐 아니라, 이슬람 금융과 사상에 대해 좀 더 깊이 있는 고찰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도 필요한 책이라고 생각한다. 이 책이 일깨워주는 또 다른 중요한 교훈은, 금융이라는 것은 어떠한 상상을 하느냐에 따라 다르게 설계될 수 있다는 것이 아닐까 한다. 현대 자본주의적 관행 금융이 그에 맞는 상상 속에서 작동하듯이, 이슬람 금융은 또 다른 상상 속에서 작동한다.